

미주 모퉁이돌선교회 기도제목(2023.4.24)

1. 북한 선교를 위한 기도

C 선교사_평양국제성경대학의 기초를 잘 다져 나가게 하옵소서!

골로새서 1 장 28~29 절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면서 온갖 지혜로 각 사람을 경책하며 가르치는 것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그의 능력을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하신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1. 견고한 믿음으로 고난의 시간을 넉넉히 통과한 C 선교사가, 이제 다시 멈춤 없이 사역의 현장으로 나아갈 때에,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들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은 형통함과 평강을 누리며, 평양국제성경대학의 기초를 잘 다져 나가게 하옵소서.

2. 디지털 도구를 통한 교육 및 훈련 교재의 배달이 안전하게 이루어지고, 북한 지하교회를 이끌어 갈 사역자들을 양성하는 도구로 귀히 쓰임 받게 하옵소서.

3. C 사역자가 6년 전에 수술한 신장으로 인하여 건강이 악화되지 않도록 지켜 주시고, 더욱더 건강한 몸으로 맡겨 주신 사역을 감당해 나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 북한의 남침야욕은 파멸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오롯이 섬으로 말미암아 그 땅과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도합니다.

북한이 현재 30 개 이상의 핵탄두를 보유한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과학자연맹(FAS)이 밝혔습니다. 지난해 9 월 추정치인 20~30 기에서 상향된 수치입니다. FAS 핵 정보 프로젝트 책임자는 “북한이 탄두 30 여기와 이에 더해 핵분열 물질을 더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정은은 작년 12 월 말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핵탄두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것”이라는 방침을 내세운 바 있습니다. 북한의 남침야욕은 파멸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오롯이 섬으로 말미암아 그 땅과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도합니다.

“그들을 당신의 폭풍으로 뒤쫓으시고 당신의 태풍으로 두렵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을 수치로 채우시어 그들이 당신의 이름을 구하게 하소서 그들이 영구히 수치를 당하여 당황하게 하시고 치욕 가운데 멸망하게 하시되 여호와가 그 이름이신 당신만이 온 천하를 다스리는 지존자이심을 알게 하소서” 시편 83 편 15~18 절(남북한병행성경 북한어) 말씀으로 핵 공격 위협 수위를 높이는 북한을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핵무력을 통해 한반도를 전체주의 독재와 우상숭배 국가로 통일하려는 김씨 세습정권의 야욕을 파멸하여 주시고, 점점 구체화되는 핵무력 정책과 전략전술이 어긋나 무용지물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북한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서며, 핵보다 강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그 땅과 백성이 감격하여 돌아오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 북한 땅에서 벌어지는 끔찍한 참상이 끝나고, 북한 백성이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도합니다.

“북한에서도 아오지는 ‘사람 못 사는 곳’으로 통합니다. 아오지는 정치범과 국군포로들을 모아둔 곳입니다. 식량난이 오면 가장 먼저 배급이 끊깁니다. 저희 반에 영희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엄마가 죽을 것 같다고 해서 제가 옥수수죽을 싸갔습니다. 그런데 제 눈앞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영희는 엄마를 찾으려 하는데 영희 아버지는 죽은 아내 옆에서 옥수수죽 그릇을 들고 막 먹더랍니다. 배고픔이 사람의 이성을 마비시킨 겁니다.” 아오지 탄광에서 탈북한 최금영이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밝힌 실화입니다. 북한 땅에서 벌어지는 끔찍한 참상이 끝나고, 북한 백성이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도합니다.

“흑암에 앉아 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림자 가운데 앉아 있는 자들에게 빛이 떠올랐도다 하였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선포하기 시작하며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이르렀다 하셨다” 마태복음 4 장 16~17 절(남북한병행성경 북한어) 말씀으로 흑암과 사망의 땅에 앉은 북한 백성을 올려드립니다. 역사적 비극이 빚어낸 끔찍한 참상 속에서 고통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굶주림과 가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죄악의 결박과 멍에를 깨트려 주옵소서. 자비로 권고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중하게 하사 주께로 가까이 나아오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빛 앞에서 회개함으로 돌이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 영육이 죽어가는 북한 주민에게 일용할 양식과 생명의 말씀이 공급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어려운 곳은 농촌보다는 도시입니다. 장사를 하지 못해 현금 수입이 없고, 구매력이 없어서 세 끼 먹던 사람이 두 끼로 참고, 두 끼 먹던 사람이 한 끼로 참고, 백미를 먹던 사람이 옥수수를 먹는 식으로 양과 질이 떨어지는 상황에 빠졌습니다.” 4 월 들어 본격적인 보릿고개에 들어선 가운데 분배된 식량을 다 먹은 이른바 ‘절량세대’가 농촌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시장을 통해 식량을 구하지 못하는 도시 주민들이 보릿고개의 ‘직격탄’을 맞았다고 북한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영육이 죽어가는 북한 주민에게 일용할 양식과 생명의 말씀이 공급되기를 기도합니다.

“누구든지 그 아들을 모시고 있는 자는 생명을 소유하나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지 않는 자는 생명을 소유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내가 이 글을 쓰는 것은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다” 요한일서 5 장 12~13 절(남북한병행성경 북한어) 말씀을 주신 생명의 하나님, 심각한 식량난에 보릿고개까지 더해져 어린아이와 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사망자가 계속 발생하는 북한의 상황을 올려드립니다. 영혼과 육체가 모두 죽어가는 북한 주민을 불쌍히 여겨 주사 일용할 양식과 생명의 말씀이 공급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더하여 식량과 성경이 보내져서 나누어질 때 복음이 더욱 확산되도록 주의 손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